

업계소식

다향M&B

⋮

오리고기로 만든 건강한 안주간편식 어때요?
‘퇴근후엔’ 신제품 4종 출시

⋮



다향M&B가 안주 간편식(HMR) 브랜드 ‘퇴근후엔(퇴근후&)’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오리고기·닭고기 등 건강한 식재료를 주재료로 한 다향M&B의 퇴근후엔 신제품은 기존보다 맛과 편의성을 더욱 높인 냉장제품이라 눈길을 끈다. 다향M&B에 따르면 퇴근후엔 신제품 4종은 ‘한입 불오리’와 ‘오도덕 불겍데기’, ‘꼬들꼬들 불닭발’, ‘꼬들꼬들 오리목살’이다.

이들 제품은 스모킹 기법으로 제조해 풍미와 식감은 물론 화끈한 불 맛이 매력적이다. 또한 혼술족(族)을 겨냥한 1~2인분 소용량(150g)으로 냉장형 트레이 용기에 포장돼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다향M&B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퇴근후엔 신제품 4종은 다양한 주류에 잘 어울려 전자레인지나 팬에 2~3분 정도 조리하면 간편하게 나만의 안주로 즐길 수 있다.

다향M&B 관계자는 “다향M&B의 가금육 가공 노하우를 앞세워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오리고기와 닭고기가 가진 특유의 식감을 화끈한 불 맛으로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안주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소비자 니즈와 입맛, 영양 밸런스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다향오리

⋮

‘통살 훈제오리 바베큐’ 출시

⋮



오리 브랜드 '다향오리'가 국내산 오리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신제품 '통살 훈제 오리 바베큐'를 출시하고 코스트코 등에서 판매를 개시했다.

1~2인 가구 트렌드를 반영해 뼈를 제거한 오리 한 마리를 먹기 좋게 반 마리 2개로 나눠 양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고, 100% 국내산 오리고기 통 살을 참나무 훈연을 통해 기름기는 빼 오리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향오리의 '통살 훈제오리 바베큐'는 에어프라이어에 최적화된 재료와 조리법을 적용했다. 18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약 12분간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일명 '겉바속촉' 오리 바베큐가 간편하게 완성된다.

다향오리의 통살 훈제오리 바베큐 중량은 1,000g이며 12일부터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1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사조화인코리아

⋮

김제시와 고용지원 산·학·관 업무협약

⋮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증설 투자 식품기업인 사조화인코리아와 푸드웨어, 한우물 등이 김제시와 고용 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월 24일 김제시청에선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 이창주 사조화인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태 푸드웨어 본부장, 최정운 한우물 대표이사,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김제시는 기업과 학교 간 원활한 고용협력을 위해 청년인턴사원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출퇴근 버스 운행 등 행정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협약기업 3개사는 연차별로 48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협약을 통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졸업생 39명을 채용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체계적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정식 채용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증설 투자기업의 고용 불안정 해소, 관내 우수인력의 취업 기회 제공 등 상생과 협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김제시도 든든한 파트너로서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